2024년 한국분석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 전환시대와

6월 22일(토) 오후 1시 - 오후 6시

장 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윤덕병홀

평점: 3점 (예정,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함)

사전등록 마감 : 6월 17일(월) 오전 10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초대의글

안녕하십니까?

2024년 춘계학술대회는 전환시대와 여성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우리는 높은 자살율과 저출산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사를 비롯한 옛 전통의 엄청난 짐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더 강력한 신이 감당해야 할 무의식의 짐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사 전통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제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니키드 생팔은 전통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거부한 여성 예술가입니다. 그녀는 shooting painting으로 기존의 전통과 자신을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Hon, Empress)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격(나나)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집단 자살의 파괴적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유적인 여성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국분석심리학회학술 이사 김 기 현회 장 이 광 자

# 프로그램

사회: 백기홍 (울산기독병원)

13:00 - 13:20 등록

13:20 - 13:30 개회사

이광자(세림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제 1부

이나미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13:30 - 14:30 한국인의 조상 숭배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기제사를 중심으로

이승섭(융학파 분석가)

14:30-15:00 지정 강의

사령(死靈)의 분석심리학적인 이해

이도희(이도희 정신과의원)

15:00-15:20 Coffee break

## 제 2부

김덕규 (융 심리학 연구소)

15:20-16:20 니키드 생팔의 삶과 작품 그리고 여성성 - 우울증 여성의 창조적인 삶으로의 변환

김기현 (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20-16:50 지정 강의

여성성의 구원 (Redemption of Feminine)으로 본 니키드 생팔의 타로 가든 (Tarot Garden)

김진숙(JS융리서치스튜디오(JSJRS))

16:50 - 17:40 종합토론

#### **등록마감** 6월 17일(월) 오전 10시까지

선착순, 마감 후 환불 불가, 미입금자 자동 취소처리 입금, 등록확인 - 마감일 이후 순차 메일 발송 마감일 이후에는 **현장 등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및 입금 완료자

등록비: 전문의, 일반인 4만원 / 전공의 3만원

입금 계좌는 신청서 내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 문의: 학회 사무국(cgjungkorea@naver.com)

#### 현장등록

당일 현장 등록(계좌이체 불가)

만석일 경우, 현장 추가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 전문의, 일반인 5만원 / 전공의 4만원

## 연회비

학회회원 : 학회의 입회 신청 및 허가를 받은 자.

연회비 내 해당 년도의 춘, 추계 학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회원(분석가): 15만원

• 연구회원(연구원) : 10만원

• 일반, 준회원: 10만원

연회비 문의: 이기경 재무이사

(blindfortuna@kakao.com)

#### 참가확인서 등록 참석자에 한하여 학회 종료 후 신청서 안내 예정

### 연수평점

의사연수평점 3점(예정)

의사면허 소지자

당일 평점 신청서에 기입 한 실제 참석 시간에 따라 점수 산정. 학회 종료 후 신청이 완료되면 평점 반영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신청서 미제출 – 미등록 처리 연락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마지막 [제출] -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제출완료



cgjungkorea@naver.com

# 오시는 길



#### 서울대학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윤덕병홀

해당 건물의 입구층은 로비(2층)이며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 오셔야 합니다.

#### ■ 주차 안내

당일 서울대학병원 주차권을 선착순 제공합니다.(참석자 한정)

제한 수량으로 소진 시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도심집회 등 혼잡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